

싼 임대료·손님 북적이는 푸드존 '백운동 명물' 되나

개점 50일 맞은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 가보니

음식판매 부스 26곳·문화체험부스 10곳 방문객 줄이어 "날 추워지면 어찌나"... 주차·취식·환경문제 등 과제 남겨

광주시 남구가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운동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이 문을 연지 50일이 지났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었던 평가가 나와 '명물'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푸드존의 상인들 사이에서 '오픈발(개점효과)'이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방문객 감소가 예상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남구청 맞은편에 조성된 백운동광장 푸드존에는 오픈한지 30분만에 몇몇 매장에는 음식을 사려는 방문객들의 줄이 이어졌다.

평일 오전임에도 가게를 찾는 방문객 탓에 영업을 준비하는 업주들의 손놀림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남구는 백운동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외식창업 및 문화체험을 운영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자는 계획으로 지난 8월말부

터 음식판매 부스 26곳과 문화체험부스 10곳을 운영중이다.

특히 음식을 판매하는 입주업체 상인들 얼굴엔 연일 웃음꽃이 피고 있다. 주말 기준 하루에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스 월세가 13만원 내외(크기별로 12만5000원~14만5000원)라는 점에서 하루 매출로 한달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 상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또 아직까지 꾸준한 방문객도 한류하고 있다. 운영본부는 9월 한달동안 평일에는 6000명, 주말에는 1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방문객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추운 날씨임에도 오전부터 푸드존을 찾은 임가경(83)씨는 "집 앞 푸른길 공원을 산책만 하고 집에 가기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어 좋다"고 웃어 보였다.



광주시 남구에 조성된 백운동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이 방문객들로 인해 붐비고 있다

하지만 생업이 걸려있는 일부 상인들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분위기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차·쓰레기 처리·취식공간·주변환경 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지적돼 왔지만,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추워지는 날씨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점효과가 잦아들자 점점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입점 상인들의 이야기다. 스트리트 푸드존이 가장 '핫'했던 9월에는 하루 매출이 30~100만원까지였지만, 당장 10월 중순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적였던 방문객도 날씨와 추장축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평일 4000명, 주말 7000명으로

줄어드는 점도 상인들의 걱정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날씨까지 추워지면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푸드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손님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특히 추장축제를 비롯해 축제들이 이어지자 주말에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남구가 스트리트 푸드존을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거라고 했는데, 최근 홍보도 뜸한 것 같고 다른 곳은 '추장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등 사람들이 몰리는 축제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 전통민요 음악회를 진행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분식류를 판매하는 B씨는 "남구가 푸드존이 시작되면 생길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매출이 줄고 있는데 남구의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 음식을 판매하는 C씨는 "공사 먼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지하철공사만으로도 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푸른길브릿지', '미디어들'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면 먼지 뒤집어 써가며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겠냐"고 불만소리를 냈다.

남구의 스트리트 푸드존 담당자는 "스트리트 푸드존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과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5·18 왜곡, 젊은층 인기 콘텐츠라니...

'가짜 유공자설' 등 '유튜브 쇼츠'로 확산...민연련, 방심위에 신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뉴스 형식으로 진행된 왜곡 폄훼가 MZ세대에서 유행하는 '유튜브 쇼츠(Shorts)' 영상으로도 제작되는 것이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연립시민연합(이하 민연련)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온라인 왜곡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9월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86개 영상 중 5개 영상에서 왜곡·폄훼 표현이 발견됐다. 영상에서는 9건의 왜곡·폄훼 표현이 등장했으며 각각 '북한군 개입

설' 2회, '폭동설' 2회, '가짜유공자설' 2회, 기타 3회 등 표현이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유튜브 '쇼츠' 영상에 '가짜 유공자설'을 퍼뜨리는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점이다. 쇼츠는 10초~1분 이하 길이 영상으로 채널 구독자뿐 아니라 유튜브 이용자 모두에게 노출돼 전파력이 크며, 젊은 층에서 소비가 많이 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기준 구독자수 상위 15개 채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9월 한 달 동안 122건의 기사에서 251건의 왜곡·폄훼 표현이 발견됐다. 지난 6월 133건, 7월 58건, 8월 13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이에 대해 민연련은 지난달 25일 5·18 암매장지에서 발견된 유골과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했다는 언론보도가 늘면서 왜곡·폄훼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댓글 중에서는 '가짜 유공자설'이 131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폭동설' 49회, '북한군 개입설' 16회, 지역 비하 15회 등이 뒤를 이었다. "지겹다", "시체팔이 또 시작됐다", "야당의 정치공작이다"는 등 '기타'로 분류된 댓글도 60회에 달했다.

민연련은 왜곡·폄훼 표현이 적발된 5개 영상과 251개 댓글을 유튜브·네이버를 통해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 민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능 사흘전부터 시험장 원격수업

광주·전남지역 고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가 수능 사흘전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18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으로 지정된 광주 65개 고교에서 같은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시험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도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확진)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시험장 38개교, 별도 시험장 2개교, 예비시험장 1개교, 병원시험장 1곳을 배치했다. 코로나 19 확진(격리) 수험생의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수험생은 지정 병원인 남구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교육부는 11월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전국 108개 학교(680개 교실)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최대 4683명을 시험을 볼 수 있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이출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는 '자율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 8030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치과병원 '예약 노쇼' 전국 최다

예약부도율 17% 달해

병원 예약을 했다가 막상 진료를 받지 않는 일명 '병원 예약 노쇼'(no-show)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전남대치과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도 오산)의원이 전국 21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남대치과병원의 예약환자 5만 4587명 중 9319명이 예약 당일 나오지 않아 예약 부도율이 약 17%에 달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3월에만 예약환자 6만여 명

중 1만 3000여 명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 예약 부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예약부도율이 높은 병원은 전북대병원이 16.8%,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15.7%, 경북대치과병원이 14.4%, 강원대병원이 14.3% 순이었다.

반면 예약 부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국립대병원(0.9%)으로 지난 1~9월까지 예약환자 약 41만 명 중 3500여 명이 진료받지 않았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전남 20일 '첫 서리'

당분간 광주·전남은 중국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2~5도 가량 낮은 추운 가을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9~20일 아침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첫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일부지역에는 밤사이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정도로 종일 쌀쌀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은 중국 중부

에서 남하하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낮 최고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이어질겠다"고 전망했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로 지역에 따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20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첫서리와 얼음이 내린다면 이는 지난해(11월 17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